

종단소식

조계종

경제난극복 지원법회

3·4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로 구성된 강원불교연합회(회장 도후·신홍사주지)는 10일 강릉 동해관광호텔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취임 및 경제난극복과 강원도민 화합 지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현해 원정사주지스님의 법어, 경제난극복 결의문 낭독,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홍사 보살계 수계식

속초 신홍사(주지 도후)는 7월20일 대웅전에서 전계대화상 석성우스님을 계사로 초창, 보살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실직자 돕기 무료급식

총무원(원장 인곡) 사회부는 매주 토요일 탑골공원에서 실직자돕기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친다. 총무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백여명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활동과 더불어 실직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글과 휴대형 관세음보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성홍사 청동삼존불 점안

군산 성홍사(주지 송원)는 청동 삼존불을 새로 조성, 7월3일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총명 원로스님과 남파 전북총무원장 스님이 증법사로 나서고 전북총무원 간부 스님을 비롯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천태종

도계 영락사 법당기공

강원도 도계 영락사(주지 덕진)는 6월 11일 총무원장 운덕, 사회부장 문덕, 감사위원 법산 스님을 비롯해 김일봉 삼척시장, 김성용 도계읍장 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회가 평화롭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종교 모두의 신앙표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법당 신축불사가 완만히 이뤄지도록 변함없는 신심과 노력정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천 금강사 창립21돌 법회

김천지회 금강사(주지 지도)는 2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5백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에 이어 독경대회, 장기자랑 시문을 마련해 신도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친분을 도모했다.

진각종

밀교문화대학 불적답사

밀교문화대학(학장 석봉)은 23일 6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적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불적답사는 안산 철정사와 용인 와우정사로 교도들은 사찰 곳곳을 돌아보며 사찰에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교구 신교도 체육대회

서울교구 신교도 체육대회가 17일 강변에서 열린다.

6백여명의 신교도들이 참석하며 축구, 육상, 대동놀이 등은 물론 열린 응원전을 통해 교도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어울림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음종

법성사 국난극복 3사 순례

창녕 법성사(주지 법성)는 26일 국난극복 삼사순례를 다녀왔다.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 삼사를 순례하며 경제난 및 사회문제에의 소극한 해결을 기원한 이날 법회에는 2천여명의 신도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미타종

진신사리천전 만등불사

총무원(원장 권성우)은 총본산 봉암사에서 7월20일 운달을 맞아 부처님 진신사리 천전법회 및 만등불사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미타종 창종 55주년을 자축하고 국운을 융흥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며, 권성우 총무원장이 봉행위원장, 사회부장 최법장 스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올 불청대회 '외화내빈'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가 6월20~21일 개최한 제17차 전국불교청년대회는 예년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처음으로 전통 사찰에서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불자 작은 깨침, 사회 속의 큰 울림으로'를 주제로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3백여명의 청년불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국민회의 장성원의원, 관인회 김제시장, 세계불교청년회장 팽타이어리 등이 참가해 역대 어느 대회보다 큰 규모였다. 또 21일에는 7백여명의 청년불자들이 전주 시내에서 IMF 극복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강산에 등 대중스타들의 공연에만 치중한 전야제와 내빈 축사, 시상식 등 일반적 행사 진행을 탈피할 수 없었던 대회는 대불청 위상정립과 조직강화 등을 일깨우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1천3백여명 참가 사상 최대 규모 문화행사 치중...위상강화 미흡 '청년불자 정체성 찾는 계기돼야'

이번 불청대회 결의문 채택 과정은 이같은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한경보호 △다중교사회의 불교위상 강화 △북북동포돕기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은 대회 기간 중 한차례의 토론도 없이 본 대회장에서 낭독 후 채택됐다. 서울불청회장 김인택씨는 "결의문은 대회 준비기간 중에 별다른 논의없이 마련됐기 때문에 실천강령 조차 없다"며 대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결의문임을 아쉬워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결의문 낭독 후에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또 이번 대회는 모든 일정이 처음으로 전통사찰에서 진행됐다는 의의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대회 기간중 봉행된 불교의식은 삼귀의 청빙가 법어 사용서인 뿐이었다. 청년회원들

은 "체육관 같이 닫힌 공간보다는 전통 사찰의 열린 공간이어서 좋았다"고 말하지만, "새벽예불과 같은 의식이 결여돼 신행단체의 대회가 단지 문화축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에서 진행한 만큼 새벽예불에 참여하지는 논의도 있었지만,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21일 도법스님이 '생명위기 시대의 청년불자상'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치고 "청년불자들이 정체성을 찾고 창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불청대회를 기대한다"는 말은 대불청 회원들 모두에게 던지는 사각의 일침이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제17회 불청대회인 금산사 경내에 입장하는 대불청 2개 직할과 15개 지구 기수들.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네팔 자활센터 '아침을 여는 마을' 착공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이 추진하는 네팔 자활센터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건립공사가 6월 19일 카투만두 교외 현지에서 시작됐다.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완공 예정인 자활센터는 건평 1백평 규모에 재봉과 목공예 등의 강좌를 개설, 매년 50명씩에 기술교육을 시켜 네팔 주민들의 자활을 돕는 한편 무료진료, 한국-네팔 불교문화 교류사업도 벌인 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전법 재가자는 포교사로 불러야" 승위지도수 월간 '법회와 설법' 서 주장

법사인가? 포교사인가? 조계종포교원이 발행하는 월간 <법회와 설법> 7월호에 부처님 말씀에 재가자의 호칭을 포교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승위지도수(외국어대 철학과)는 "법사인가 포교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함부경전을 근거로 '법사란 좁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는 출가수행하는 스님들을 일컫는다'며 "법문을 하거나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포교사'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계종포교원이 발행하는 매체에서 재가자 호칭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재가자의 호칭으로 '법사'가 널리 쓰이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관광지 26사찰 실직자에 관람료 면제

국도립공원과 국민관광지 내의 26개 합동진수 사찰들이 실직자 가족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26일 전국합동진수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실직자 가족에 대한 국립공원입장료를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국도립공원과 국민관광지의 사찰을 탐방하는 실직자

는 구직신청확인서나 생활보호대상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전국합동진수사찰 주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먼저 입장료 면제방향을 세우고 뒤늦게 사찰측에 문화재관람료 면제 권유한데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사찰의 결정을 중용하는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성토했고 추후 사찰관련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국립공원 입장료제지의 조속한

실현과 농지법 개정규칙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될때까지 전국합동진수 사찰에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합동진수사찰주지회의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임연태 기자 (ylim@buddhapia.com)

대원사 철불좌상 점안

충주 대원사(주지 법공)는 6월 18일 이시종 총주지장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불좌상이미타불(보물 제98호)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95년 총정불사도중 화재가 발생, 보호각이 소실돼 충주시립박물관에 임시 이운됐으나 충주시의 보조금 지원이 신학사에서 '사찰유물 특별전'을 겸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개교 10주년을 맞는 전북불교대학은 이밖에도 고승초창법회, 학사이전 원만성취 특별법회, 학인작품 및 소장품 전시회 등 다양한 개교 기념행사를 펼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방송광고공사 폐지 안될말" 배기선 사장 밝혀... "벤처기업에 요금 할인"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한 방송광고공사(사장 배기선)는 6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업의 독립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 자리에서 배기선사장은 "7월 중순부터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백87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요금을 정상 판매단가의 30%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외국 광고주

학사를 마련하고 27일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전주시 삼천동1가 안행택지개발 지구에 신축된 전북불교대학은 총건평 5백여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3층(대·소강의실, 사무실)과 4층(큰법당 회의실 대강당)을 사용하며 지하1층과 1.2층은 임대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2일부터 5일까지 신학사에서 '사찰유물 특별전'을 겸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새

Advertisement for the book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by Oso Rinzai.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a large vertical character '佛' (Buddha). Text describes the book's theme of inner peace and enlightenment through Buddhist teaching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is provided at the bottom.